만주국 시기 일본의 대륙신부 정책의 성립과 전개

-일본 현지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곽규환* · 김해림**

Ⅰ. 서론
Ⅱ. 일본의 만주침략과 대륙신부 사업 등장
Ⅲ. 대륙신부 사업 체계화 및 교육기관 설립
Ⅳ. 결론

■ 국문초록

대륙신부 정책은 만주로 이주한 일본 남성 개척민의 가정 구성과 만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930년 전후 일본이 대규모로 진행한 만주이민사업의 보완책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 만주국 현지에 각각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개척민의 여성 배우자를 양성·조달했다. 본 논문은 일본 내 대륙신부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대륙신부를 위한 교육이 만주 현지의 특성과 정착 지원보다 여성을 대(對) 만주국 팽창정책에 동원하기 위한 '전통적인 일본 여성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일본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와 더욱 확고한 만주 지배를 위해 대규모의 국책이민사업을 실시한

* 郭奎煥. 중국 길림대학(吉林大學) 공공외교학원 박사과정 수료.
e-mail: zaytun1016@naver.com.
** 金海林. 중국 길림대학(吉林大學) 문학원 중국근현대사 석사.
e-mail: miss788725@naver.com.

다. 일본 내 저소득층 농민을 중국 만주로 이주시켜서 일본 국내의 과잉 인구 및 경제문제를 완화하고, 정착 일본인이 적었던 농촌 지역에서의 대(對) 만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생소한 만주에서 이민자(개척단)의 정착은 쉽지 않았다. 1934년 시범단으로 파견된 개척단원 중 상당수가 고된 개척 사업을 이기지 못하고 개척단을 이탈했다. 그러자 일본은 미혼 농민 남성 중심의 개척단이 가정을 일구면 안정적인 만주 정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대륙신부 정책을 추진한다. 대륙신부 사업 초기는 민간단체가 국책 사업인 만주농업이민을 보조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더 빠른 신부 공급을 위한 정부 관여가 강해지는 민관협력 사업의 형태로 변화했다. 1937년 전후에는 만주국 현지의 여성 배우자 훈련소(만주개척여숙)를 설립하여 더 적극적인 대륙신부 모집 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대륙신부 모집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일본 국내의 여성척식지도자들은 이민의 목적이 개척단원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사실을 축소하고 만주 현지 생활의 실상을 왜곡한다. 대륙신부 교육기관 역시 현지 정착에 필요한 실용적인 교육보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을 중시했다. 대륙신부 사업의 등장과 대륙신부관련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 내용은, 일본의 대륙신부 정책이 일본의 대(對) 만주 팽창정책의 보조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만주국, 일본정부, 대륙신부, 여자척식사업, 여성동원

■ Abstract

Japanese Women Migration Policy during the Manchukuo Period: A Focus on Migrant Brides Training Centers in Japan

Kwag Kyuhwan (Jilin University)
Kim Haelim (Jilin University)

To nurture and procure female spouses for Japanese male settlers, Japan established migrant bride education centers in Japan and Manchuria during the Manchukuo Period.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s Migrant Bride Project and the expansion of migrant bride training centers. After Manchuria's establishment in 1932, Japan implemented this large-scale national immigration project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Manchukuo. The project relocated low-income farmers from Japan to Manchuria, aiming to reduce problems associated with rapid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issues in Japan. However, implementing the Manchurian immigrant policy presented several challenges. The government determined that stable settlement in Manchuria would require family planning, with single farmers marrying in the country to create families. The government held a briefing session on the Manchurian Agriculture Migrant Project and established an institution that trained Japanese

women from poor rural backgrounds. These newly established training centers aimed at instilling these women with the skills to perform “various Japanese women’s roles” needed in Manchuria. In reality, center leaders exploited these women’s desires for social inclusion beyond their marginalities in Japan, which led to many of them dedicating their lives to Japan’s project abroad. In so doing, these leaders often reduced education on the difficulties of marriage and immigration. Instead, they romanticized overseas experience without divulging the problematic relations of immigrant life and status in Manchuria. These educational institutions’ operations expose migrant bride policy as an extension of Japan’s imperial expansionism in Manchuria through the exploitation of poor rural women’s bodies.

Key-words : Manchuria, Japanese Government, Migrant Brides, Women's Colonial Enterprise, Mobilization of woman

Ⅰ. 서론

본 논문은 대륙신부 사업 구상 및 정책화 과정과 대륙신부 교육기관의 확장 과정을 검토하여,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 신체 활용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륙신부 정책은 만주로 이주한 일본 남성 개척민의 가정 구성과 만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930년 전후 일본이 대규모로 진행한 만주이민사업의 보완책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 만주국 현지에 각각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개척민의 여성 배우자를 양성·조달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일본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책 이민사업을 시작했다. 일본 내 저소득층 농민을 중국 만주로 이주시켜 일본의 대(對) 만주 영향력을 강화하고, 일본 국내의 과잉인구 및 경제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생소한 만주에서 이민자(개척단)의 정착은 쉽지 않았다. 1934년 시범단으로 파견된 개척단원들은 고된 개척 사업을 이기지 못하고 개척단을 이탈했다. 그러자 당시 농업 이민을 지도했던 도미야 가네오(東宮鐵男)[1]는 미혼 농민 남성 중심의 개척단이 가정을 이루면 안정적인 만주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결혼한 단원들이 개척단을 이탈하지 않고 정착하자 일본정부와 각 부·현(府·縣)은 만주이민사업 설명회 개최를 지원하고, 대륙신부 관련 교육기관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대륙신부 양성 작업을 펼친다. 이 사업들은 훗날 더 많은 여성을 만주로 이주시켜서 개척단원의 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만주국 현지 여성 배우자 훈련소(만주개척여숙) 설립으로

1) 관동군 대위 도미야 가네오(1892년 8월 17일~1937년 11월 14일)는 1928년 장작림폭살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32년 12월 8일 <제1차 무장이민의 정신동요상황 및 제2차 이후 인성에 대한 요망서>에서 1차 개척단원의 비행 문제를 지적하고 단원 심신 안정과 만주이민정책 안정화를 위하여 여성을 이용하고자 계획한다(杉山春. 1996, *滿洲女塾*, 新潮社, 21;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ー「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舍, 152).

확장됐다. 대륙신부 정책은 만주팽창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규모 농업이민정책의 보조 정책으로,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빈농 출신 여성의 신체를 정책 도구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다.

대륙신부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대륙신부의 역할을 다루었다. 대륙신부 연구는 1990년대 일본학계에서 시작됐다. 일본 학계의 만주국 시기 농업이민, 신부훈련소 등 대륙신부 관련 연구[2]는 상당한 수준으로(곽규환·김해림. 2018, 130), 대륙신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구술사 구축까지 진행중이다.[3] 일본 학계의 대륙신부 관련 선행연구 중 대표적인 연구는 스즈키 유코(鈴木裕子)[4]의 『종군위안부·내선결혼(從軍慰安婦·內鮮結婚)』과 가노 미키요(加納實紀代)[5]의 『만주와 여성들(滿洲と女たち)』이다. 스즈키 유코는 당시 일본 정부가 만주개척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륙신부에게 남성 개척민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성 위안자의 역할을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륙신부 역시 전쟁의 희생자이며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가노 미키요는 1942년에 척식성(拓殖省) 척북국(拓北局)이 발행한 『여자척식지도자제요(女子拓殖指導者提要)』를 중심으로 대륙신부를 분석했다. 그는 스즈키 유코와 달리 대륙신부가 일본문화침략의 도구이며 현지인 동화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전쟁 가해자의 일원이라고 여겼다.

중국 학계는 2000년대 이후부터 대륙신부 관련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6] 중국학계에서 대륙신부 정책을 비교적 깊이 있게 논의한 저작은 스

2)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稼はどうつくられたか-戰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杉山春. 1996, *滿洲女塾*, 新潮社;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ー「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舍.

3) 'watashiのNext Waveを探して'(https://nextwave100.net); アーカイブス中国残留孤児・残留婦人の証言(http://kikokusya.wixsite.com/kikokusya); 한편 2013년 8월 4일에 일본의 방송국 NNN은 만주이민, 대륙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만주로 신부를 보내라 여자척무훈련소(滿州へ花嫁を送れ 女子拓務訓練所)」를 방영했다.

4) 鈴木裕子. 1990, *從軍慰安婦·內鮮結婚*, ドメス出版.

5) 加納實紀代. 1994, "滿洲と女たち", *近代日本と植民地5 膨張する帝國の人流*, 岩波書店.

6) 중국 학계의 경우, 1961년 콩징웨이(孔经伟)교수가 일본 동북이민사연구를 발표한 이후부터 만주이민사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1980년대는 일본 만주이민정책에 대

옌춘(石艳春)의 『일본"만주이민"사회생활연구(日本"满洲移民"社会生活研究)』[7]이다. 그는 저서의 한 장을 할애하여 일본 여성 이민정책의 제정, 실시, 그리고 여성 이민 관련 조직을 정리했다. 그러나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륙신부 양성과 선발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그의 연구 목적이 대륙신부의 실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침략성을 부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여성동원 논리와 여성 역할은 주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학계의 다른 대륙신부 관련 연구도 대동소이하다. 또한, 중국 학계는 대륙신부가 가해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중성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대륙신부가 침략의 도구이지만, 많은 여성이 당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원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륙신부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내용을 다룬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8]

국내 학계의 경우, 일본인 만주농업이민 혹은 만몽개척청소년의용대 연구는 상당히 이뤄졌지만[9], 대륙신부 정책 및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집중적

한 비판, 이민지역, 이민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축을 이뤘다. 1990년대 이후에는 관련 사료들이 공개되면서 이민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 만주이민, 만주국의 인적 동원, 잔류고아 문제 등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다만 중국의 만주이민연구는 주로 일본 남성 이민을 분석한다. 이는 중국의 만주국 관련 여성 연구에서 일본 패망 이후 거취문제가 불거졌던 잔류 일본여성과 그들의 자녀인 잔류고아에 대한 연구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만주이민연구에서 대륙신부가 언급됐고, 2000년대부터 대륙신부 정책을 소개하는 연구서가 등장했다. 주목할 만한 연구는 동북사범대학 역사학과 가오러차이(高乐才)교수의 연구다. 그는 저서 『日本'满州移民'研究』의 4장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에서 대륙신부에 관련된 정책과 실행현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뤘다.

7) 石艳春. 2011, *日本"满洲移民"社会生活研究*, 高等教育出版社.

8) 张洁·孟月明. 2011, "东北沦陷时期日本"大陆新娘"政策述评", *人民论坛*; 王青. 2011, "日本侵华期间"大陆新娘"政策的提出", *首都师范大学学报*; 孟月明·张洁. 2012, "日本"开拓团"中"大陆新娘", *炎黄春秋*; 石艳春. 2010, "日本"满洲移民"中的女性", *社会科学辑刊*; 李淑娟·王希亮. 2015, "日本的大陆扩张与"满洲开拓"女性", *学术交流*; 张晓丽. 2015, "用"大陆新娘"安抚移民", *辽宁日报*; 孙炜. 2016, "抗日战争时期日本的"大陆花嫁"", *史学月刊*; 石艳春. 2014, "日本"满洲移民"时期的庄内型移民—以大和村为例", *齐齐哈尔大学学报*.

9) 안지나. 2017,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과 보고문학의 한계-간노 마사오(菅野正男)『흙과 싸우다(土と戰ふ)』(1940)를 중심으로.", *만주연구(24)*; 안지나. 2016, "전시 제국의 미성년자 동원-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의『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1943)을 중심으

으로 다룬 연구는 곽규환·김해림의 「만주국 시기 일본의 여성동원과 만주 이민」이 유일하다.[10] 이 연구는 정책 및 증언 자료를 토대로 만주국 현지에 설립된 대륙신부 양성기관 증설·운영 및 성격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만주 현지 신부 교육기관(만주개척여숙)의 설립·위탁 운영 주체가 만주에 '일본성(日本性)'을 공급하려던 기관(관동군, 만주이민개척단 등)과 유관 민간단체이며, 만주에서의 대륙신부 교육기관이 이민 선출지역과 민간단체에 의해서 먼저 설립·운영된 후 중앙 정부에 의해 체계화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만주개척여숙 교육 내용을 검토하여 당시 일본의 여성동원이 만주에 '일본성'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주국 현지 대륙신부 교육기관의 모태였던 일본 내 대륙신부 교육기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본 논문은 대륙신부 정책의 배경과 일본 내 대륙신부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과정을 검토하여, 대륙신부 정책 초기 일본 내 대륙신부 교육기관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일본의 만주이민정책과 여성동원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륙신부 정책의 시행 과정과 대륙신부 양성기관의 설립 및 교육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에 최초로 설립된 대륙신부 교육기관[11]은 이후 만주 현지 대륙신부 교육기관인 만주개척여숙의

로", *만주연구(21)*; 최경순. 2012, "만주 개척이민사에서도 소외된 일본의 피차별 부락민을 중심으로", *만주연구(14)*; 김영숙. 2013, "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개척단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122)*.

10) 곽규환·김해림. 2018, "만주국 시기 일본의 여성동원과 만주 이민-만주개척여숙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25)*.

11) 대륙신부 교육기관은 일본과 만주국에 각각 다른 시기에 설립됐다. 본 논문은 일본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여자척식강습회(女子拓殖講習會)'와 '여자척식훈련소(女子拓殖訓鍊所)'로 명명한다. 여자척식강습회는 시기별 지역별로 만몽개척신부학교(滿蒙開拓花嫁学校), 만몽개척여자청년숙(滿蒙開拓女子青年塾), 만몽이민신부학교(滿蒙移民花嫁学校), 신부숙(花嫁塾), 신부강습회(花嫁講習会)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여자척식훈련소 역시 시기별, 지역별로 여자척식훈련소, 여자개척훈련소, 여자농원훈련소, 만주개척여자척식훈련소, 기쿄노하라여자척무훈련소(桔梗之原女子拓務訓鍊所), 일만여숙(日滿女塾)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다. 1942년 <만주여자척식사업대책요강>에 의해서 여자척식사업이 체계화되면서 여자척식강습회, 여자척식훈련소라는 명칭으로 통일됐다. 반면, 만주개

모태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의 대륙신부 정책수립 과정과 일본 내 대륙신부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 내용 검토는 당시 일본의 대륙신부 정책의 실태 이해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동시에 일본의 대(對) 만주 정책에서의 여성동원 방식과 논리를 이해하는 주요 분석 대상이다.

Ⅱ. 일본의 만주침략과 대륙신부 사업 등장

1. 만주농업이민사업 추진

1930~1931년 만주의 일본인 인구는 약 23만 명에 달했다. 만주국 건국 후 만주에 거주할 일본인이 더 필요해졌다. 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정치인, 관료, 기업인과 전선에 걸쳐 주둔하던 군인뿐만 아니라 일본 통치를 영구화할 수 있는 일반 주민 수요가 생긴 것이다. 1932년 만주국 건국 직후 만주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사업이 논의됐지만, 당시 일본 내각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주이민사업에 반대하던 대장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가 5·15사건 때문에 경질되자 이민사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됐다. 북진론자인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중개로 농본주의자 가토 간지(加藤完治)가 도미야 가네오와 만나 이민계획 추진에 합의했다. 1932년 8월 16일, 관동군으로부터 토지 제공

척여숙(滿洲開拓女塾)은 관동군의 만주 현지 남성 개척민의 배우자 훈련소 설립 구상에 따라서 1939년 이후부터 만주 전역에 설립된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통칭한다. 만주 대륙신부 교육기관은 개척여숙(開拓女塾), 신부여숙(新娘女塾), 개척신부숙(開拓新娘塾), 만몽개척여자훈련소(滿蒙開拓女子訓鍊所), 여자의용대훈련소(女子義勇隊訓鍊所) 등으로 불렸다. 기존 연구들은 정책에서 적시한 공식명칭인 '개척여숙'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본 내에 개설한 대륙신부 교육기관과 대비하고 만주국에 세워진 현지 배우자 훈련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주개척여숙(滿洲開拓女塾)이라고 표기한다.(곽규환·김해림. 2018, "만주국 시기 일본의 여성동원과 만주 이민-만주개척여숙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25)*, 100).

을 약속 받은 척무성은 가토 간지와 도미야 가네오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내각회의에 '일천호이민안(一千戶移民案)'을 제출한다. 이 기획안[12]은 내각회의 심의 후, 500명의 시범 이민단으로 조정(예산 207,850엔)돼 의회를 통과했다(최경순. 2012, 288). 같은 해 8월 22일 척무성은 이민모집회의를 소집하고 대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도호쿠지방 6개 현과 나가노(長野), 니가타(新潟),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도치기(栃木)의 5개 현을 포함하여 총 11개 현[13]을 이민선출지(移民選出地)로 결정했다(Mori Takemaro. 2004, 5). 이 1차 무장 이민단원은 농촌 출신의 재향군인으로 구성됐다.

1932년 10월 3일, 가토 간지가 중심이 된 제1차 무장 이민단 493명은 도쿄를 출발하여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동북 쟈무쓰(佳木斯)시 융펑(永豊)현을 거쳐 장룽(張榮)촌으로 이주했다. 일본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대량 농업 이민사업이었다. 1932년 10월, 농업 이민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일본 내 해외 이민사업에서 미미한 부분[14]을 차지했던 만주 농업이민 사업은 일본의 패전으로 사업이 붕괴된 1945년 8월까지 약 270,007명의 농업 이민자를 만주로 송출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발전했다(蘭信三. 1994, 45).

일본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수립은 일본인 만주이민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 관동군은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주국 국경선 방위를 위한 민간인 보조자인 둔전병이 필요했다. 또한 정치적

12) 척무성은 '1천만호이민안'에서 퇴역군인으로 이민단을 구성하여 1932년 가을에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이란(依兰) 구역으로 500호, 1933년 봄 500호를 이주시킬 것을 제안한다.

13) 이민자 규모는 나가노현, 야마가타(山形)현, 쿠마모토(熊本)현, 후쿠시마(福島)현, 니가타(新潟)현, 미야기(宮城)현 순이다. 농촌공황의 타격을 크게 받은 나가노와 도호쿠 지역의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나가노현에는 현재 만몽개척평화기념관(滿洲開拓平和記念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14) 1930년대 미국에 이어서 남미인 브라질 이민이 일본 해외 이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蘭信三. 1994, *「滿州移民」の歷史社會學*, 行路社, 56).

측면에서 만주국에 일본의 가치와 일본의 질서를 확장시켜 만주국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 기층에서 생활할 일본인이 필요했다(蘭信三. 1994, 56). 일본인 만주이민사업 추진은 관동군의 정치·군사적 목적과 만주이민론자들의 만주개척에 대한 구상이 부합한 결과였다. 만주이민론자는 일본 농촌공황에 의한 사회 불안정 요소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정부의 만주이민사업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초기 만주이민사업은 관동군, 만주이민론자, 일본 정부의 필요 때문에 추진된 것이다. 또한, 초기 만주이민사업은 농지 부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일본 국내 농민에게 새로운 농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일본인 만주이민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이뤄졌다. 첫째, 북진론자의 대소전략적 방어라는 군사적 목적, 둘째, 만주개척의 환상을 품고 있었던 만주이민론자의 대륙진출 실현, 셋째, 가토 간지로 대표되는 농본주의자의 경지확대라는 목적, 넷째, 가난과 경작할 농지가 없어 곤란한 농가의 청년들과 도시빈민들의 새로운 삶의 개척 등 다양한 이익 주체의 이익 추구가 맞물려서 시작됐다.

2. 둔간병과 대륙신부 사업 구상

재향군인회 소속 독신 남성들로 이루어진 493명의 제1차 무장이민단은 대부분 30세 미만의 미혼자였고, 부인과 함께 만주로 건너간 이는 극소수였다.[15] 단원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낮에는 토지 개간, 밤에는 국경 수비 및 유격대 공격으로부터 개척지를 보호하는 가혹한 일상을 이어갔다. 식사는 거친 잡곡밥 위주였는데(石原八重子. 1991, 44), 이마저도 넉넉지 않아 개척단원들은 종종 중국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가축을 훔쳐 먹는 등의 말썽을 일으켰다.[16] 1933년 6월, 결국 단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간

15) 약 500명에 가까운 무장이민단원 중에 부인과 함께 동행한 단원은 30명에 지나지 않았다(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ー「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舍, 152).

16) 도미야 가네오는 1932년 12월 8일『제1차 무장이민의 정신동요상황 및 제2차 이후의 인

부배척운동이 발생했다. 1934년 3월, 관동군의 강제적인 토지매수 때문에 대규모 항일무장투쟁인 토룡산 사건(土龍山事件)이 발발했다. 이 결과 이민단이 동요하면서 1차 무장이민단원 493명 중 162명이 개척단을 탈퇴했다.

<표1> 제1차 이민단 정주지 장롱촌 현황

년도	이민자수	전병사(戰病死)	탈퇴자	가족초치
1932년	493	5	17	·
1933년	·	9	98	·
1934년	·	5	47	172
1935년	·	1	·	98

출처: 石原八重子. 1991, 大地を拓いた女たち-滿州開拓から近代農業に行き着いて聞き書き, 44.

농업이민을 지도하고 무장이민단원들의 만주 정착을 돕던 도미야 가네오는 단원들의 불평불만과 불복종 현상을 '둔간병(屯墾病)'이라 규정하면서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도미야 가네오는 미국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지인 사진가 테라시마 만지(寺嶋萬治, 1898~1983)에게 단원들의 정착문제에 대해 상담했다. 테라시마 만지는 미국 내 일본인 이민지역을 시찰한 경험을 토대로 "이민지에는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가 있으면 어디든 화목해진다. 의외로 여자가 강하다. 아니, 여자 쪽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 다소 무리일지라도 가족을 초청하고 신부를 보내라."고 조언했다(杉山春. 1996, 21). 도미야 가네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여성을 통해 단원정착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먼저 그는 개척단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으로 영구 정착을 도모하고자 가족 초치(招致)와 미혼 단원들의 결혼을 제안했다. 1933년 2월, 도미야는 개척 단원의 배우자를 모집해 만주로 송출하는

선에 대한 요망서』에서 단원들의 비행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단원의 심신 안정과 정책 안정화를 위해서 여성(대륙신부) 활용을 도모하게 된다.

계획을 추진했다. 그는 먼저 봉천에서 도예가로 거주하고 있던 지인 오구라 엔베(小倉円平, 1912～2001)에게 신부모집 포스터를 의뢰하고 '신일본의 소녀여, 대륙으로 시집오라(新日本の小女よ 大陸嫁げ)'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신부모집을 선전했다.

도미야 가네오의 만주개척에 대한 환상은 위의 시와 포스터로 구현됐다. 이 포스터는 도미야 가네오의 협조 요청에 의해 일본 시·읍·면의 관공서에 나붙었다(杉山春. 1996, 21). 무모할 것 같았던 도미야 가네오의 신부초청 계획은 이후 대량 여성이민송출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여자척무강습회 및 훈련소, 만주개척여숙 등의 대륙신부 교육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1933년 4월 관동군은 도미야 가네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당한 성비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인이민실시요강안(日本人移民實施要綱案)'을 제정했다. 이처럼 대륙신부 구상은 남성 개척단원들의 개척지 영구정착을 통한 이민사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미야 가네오의 작품이었다.

초기 대륙신부 모집은 이민단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1933년 8월(20여 명)과 10월(30명)에 이루어진 단원들 가족초청과 함께 추진됐다. 이때 여성들은 별도의 신부 교육 과정 없이 이민단원과 사진으로 맞선을 본 후, 만주로 건너가 결혼·입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초 대륙신부 초청과 이민단원 가족초청 이후 개척단을 탈퇴하는 단원이 없어졌다. 도미야 가네오의 예상대로 가족 및 신부초청 운동이 개척민 정착에 효과를 보이자 신부모집 활동은 대륙신부 사업으로 발전되어 만주이민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34년 이민단 간부들은 도미야 가네오의 신부초청 계획과 관동군의 지시에 따라 신부를 찾기 위해 단원들의 고향으로 일시 귀국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만주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신부 모집이 어려웠다. 특정 연고가 있는 일부 여성들이 이민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대

부분은 고향의 부녀단체인 대일본국방부인회[17], 애국부인회, 대일본연합여자청년단의 지부와 농촌지역 관공서의 협조를 얻어 모집이 이뤄졌다. 1차 무장이민단원의 배우자로 모집된 30명의 여성은 같은 해 9월 하얼빈(哈爾濱) 이란(依兰)현에서 집단맞선을 본 뒤, 제1차 무장 농업 이민단의 입식지인 장롱촌으로 이주했다. 이들이 최초의 대륙신부이다. 이처럼, 신부초청을 위해 진행된 신부찾기는 대륙신부 사업(여성이민송출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전부터 정책적 성격[18]을 띠었다(陳野守正. 1992, 153).

다음 해인 1935년 제2차 이민단(493명)의 독신개척단원을 위해 신부를 모집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130명의 신부가 모집됐다(大森直樹. 1996, 483). 이는 1차 이민단원 신부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제2차 무장농업이민단의 신부들은 같은 해 6월 치엔쩐(千振)촌에 정착했다.

초기 대륙신부 모집은 배우자가 필요한 미혼 단원과 개척단 단장이 직접 일본의 고향을 방문해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 지사와 민간단체 지부장 등의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았다. 또 일부의 경우 개척단원의 가족

17) 대일본국방부인회(大日本國防婦人會)는 일본의 부녀자 단체로 1932년부터 1942년까지 활동했다. 1932년에 군과 연관이 없는 일반 여성들의 '오사카국방부인회'로 발족한 이후 군의 지원을 받아 '일본국방부인회'로 개명하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군은 대일본국방부인회를 후방의 전쟁 협력 및 사상 통제에 이용했다.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는 전전(戰前)에 국방 및 전사자 유가족, 부상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1941년 6월 10일 정례 국무 회의에서 일본연합부녀회 및 일본국방부녀회 등 세 단체의 통합 요구가 결정됐다. 이후 1942년 2월 대일본부인회(大日本婦人會, 속칭 일부(日婦)가 결성된다. 대일본연합여자청년단(大日本聯合女子青年團, 이하 연합여청(聯合女青))은 1927년 내무성(內務省) 관할의 처녀회중앙부(處女會中央部)를 흡수한 전국적 수양단체(修養團體)였다. 연합여청은 처녀회에서 공공생활훈련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연합여청은 1931년 위안사(慰安士) 파견뿐만 아니라 만주이민사업, 특히 만주 일본인 여성 결혼 이민에 깊이 관여하며 국가의 여성척식사업을 보조했다. 연합여청은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1년 1월 16일, 대일본연합청년단, 대일본소년단연맹, 제국소년단협회의 3개의 단체와 결합하여 대일본청년단으로 통합되었다(渡邊洋子. 2002, "1940年代前半期の女子青年團運動の指導理念と事業(I)-「國民化」とジェンダーの問題を考える手がかりとして", *京都大學生涯教育學·圖書館情報學研究*,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ー「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舍*, 152).

18) 미야기현 이민운동을 조사한 유노키 슌이치(柚木駿一)에 따르면, 1934년 신부 1호로 만주로 건너간 여성 30명은 미야기현 출신으로 미야기현 지사 부부가 신부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이나 연고자에게 부탁하여 혼기가 찬 여성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사진맞선으로 상대를 정하고 결혼식 당일에 당사자와 대면하는 방식이었다. 미혼 단원 본인이 직접 여성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초 신부모집은 1933년 4월 관동군이 '일본인이민실시요강안'을 통해서 "적당한 성비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권고한 이후에 시작됐다. 또한 1차 신부모집도 이민자 출신 현 지사 및 여성단체 지부 협조가 있었다.[19]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대륙신부 사업은 초기부터 정책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신부 모집은 이미 만주에 이주한 개척단원의 고향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도미야 가네오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개척단원과 동향 출신 여성들이 남성 단원과 유대가 쉽게 형성되어 단원들의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기본적으로 농사일에 대한 감각이 있는 농촌 출신 여성들이 다른 출신 여성보다 더 수월하게 남성단원들을 돕고 현지의 농사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따라서 신부초청 시기에 신부가 된 여성들은 개척 이민을 위한 특별한 교육 없이 만주로 건너가 이민단원과 결혼하고 개척지에 입주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시대 상황과 일본 빈농 여성들의 의지 때문이다. 1937년까지 농촌공황으로 피폐해진 농촌경제 상황 때문에 농촌지역 여성들 역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초기 대륙신부 모집활동이 벌어지던 1934년, 도시 공장이 하나 둘씩 도산·폐업하여 대량의 여공들이 귀향했다. 특히 일본 도호쿠지방(東北地方)과 호쿠리쿠지방(北陸地方) 농촌에는 이러한 남녀가 넘쳐나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늘어난 인구에 비해 부족한 경작지 문제로 토지를 둘러싼

19) 만주국 건국 이전부터 위안사 파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대일본부인회 지부와 기타 여성단체들이 신부 모집에 협조했다. 정책 차원에서 신부 모집이 진행되면서 민간단체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 여자척식지도자라는 명칭으로 전문적으로 육성됐다.

혈육 간의 싸움이 발생하였으며, 소출이 줄어 소작비를 마련하지 못한 농가에서 딸을 매춘업소에 팔아넘기는 일이 속출했다. 이렇듯 경제적 곤경이 심해지자 돈을 벌기 위해서 유곽에서 몸을 파는 것이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됐다.[20] 이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농가 여성들에게 만주개척 환상은 남성 개척민 못지않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됐다. 피폐해진 농가경제는 농촌 여성을 만주이민단원의 신부에 응모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민선출지역 출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부모집이 시작된 것이다.[21]

초기 신부모집 시기에는 여성들이 신부에 응모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이 해소되는 193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만주이민정책은 현실적 근거를 잃고 대중동원으로 전화했다(安志那. 2016, 13). 특히 만몽개척의용군의 발족으로 신부 수요가 폭증하는 1936년 이후로 전국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대륙신부 교육은, 여성이민자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만주이민을 둘러싼 제국 일본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여 만주이민을 독려하기 위한 선전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대륙신부 초청 시기의 대륙신부와 대륙신부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시기의 대륙신부는, 만주이민 동기와 만주에서 수행한 여성 역할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20) 1931년 야마가타현 조사에 따르면, 촌 내 15세에서 24세까지의 미혼여성 468명 중, 23%에 달하는 110명의 여성이 가족에 의해서 매춘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경시청 조사에서도 1929년 1년 동안 도쿄에서 매춘하는 소녀는 6,130명에 이르렀다(加藤聖文. 2002, 老苦體驗手記-海外引揚者が語り繼ぐ勞苦(引揚編) 第14卷, 平和記念展示資料館, 72-75).

21) 남성들뿐만 아니라, 초기 대륙신부 대책에서 쇼와도호쿠대흉작(昭和東北大凶作, 1933~1934)으로 인한 일본 도호쿠지방의 경제 피폐가 여성들을 대륙신부 사업에 이끄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만큼 도호쿠지방의 경제위기라는 요인이 여성들의 만주이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III. 대륙신부 사업 체계화 및 교육기관 설립

1. 만주농업이민 확대와 대륙신부 사업 체계화

1933년 4월 관동군이 '일본인이민실시요강안'에서 "이민지 내 적당한 성비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권고하며 시작된 신부초청 활동은, 1936년 '만주농촌이민백만호이민계획'이 국책으로 정해지고 만주이민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초기 신부모집 때부터 협력했던 이민선출지역과 민간단체들이 남성이민자의 배우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전에 나섰다. 대륙신부 수요가 급증한 1930년대 후반 무렵부터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신부 모집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 민간단체는 여자척식강습회를 개최하거나 여자척식훈련소를 설립하여 신부 사업을 선전했다. 특히 이민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신부모집과 계몽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백만호이주계획 결정 직전인 1936년, 도호쿠지방의 미야기현 난고정(南郷町) 난고고등국민학교에서 만주 개척단원 배우자를 희망하는 미혼 여성을 상대로 신부강습회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3월 5일에서 9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강습회에서 난고고등국민학교 교사 5명이 강사로 활동했으며 총 30명의 여성이 참가했다. 다음 해인 1937년에 진행된 제2회 여자개척강습회에는 수강생 80명, 청강생 50명이 참가했다(陳野守正. 1992, 155).

대규모의 개척단원을 송출한 야마가타현도 빠르게 신부교육을 추진했다. 1937년 5월 16일『야마카타신문(山形新聞)』보도에 따르면[22], 히가

22) 야마가타현 히가시무라야마군 총합청년단 및 유도유단회가 중심이 되고 군 교육회가 후원하여 데와촌 나나우라(七浦)에 청년수련도장이 착공됐다. 2층 건물로, 1층은 도장으로 2층은 강당을 겸한 합숙 설비를 갖췄다. 이 건물은 강습회 뿐 아니라 국책 사업을 위한 만주 농업 이민사업 관련 여자척식훈련소로써, 만주로 보내지는 대륙신부 교육을 담당했다(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ー「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舍, 45).

시무라야마(東村山)군 데와(出羽)촌의 오아자야마우라(大字山浦)에 총합청년단 및 유도단회 중심으로 군교육회의 후원을 받아 청년연술도장이 착공됐다. 도장은 2층 건물로 구성되어 1층은 도장으로 2층 강당을 겸한 합숙시설로 설계됐다. 신문은 2층 강당 겸 합숙공간이 만주농업이민사업을 위한 여자척식훈련소(女子拓殖訓鍊所)로서, 이곳에서 만주신부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陳野守正. 1992, 45). 해당 훈련소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여자척무훈련소이며, 야마가타현 척무협회의 후원을 받아 운영됐다. 1936년부터 활발히 전개됐던 강습회는 기존의 교육 시설을 빌려 선전 활동을 했으며, 훈련소는 전문시설을 갖춘 상설 강습 기관으로 개설됐다.[23] 1937년부터 대륙신부를 모집하는 민간단체는 1937년 상설 신부교육 기관 설립을 추진했고, 지방정부가 운영과 경영을 보조했다.

대륙신부 대책은 남성개척민이민처럼 국책의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개척단 선출 지역과 부녀단체가 활발한 활동으로 일단의 모집 성과를 낸 후, 중앙에서 사업의 형태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만주이민정책 확대 과정에서 개인과 민간단체 주도로 설립된 대륙신부 교육기관들은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은 부·현이 운영하고 민간단체 주도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1938년부터 척무성은 개척민 배우자 수요 증가에 따른 여성 송출문제 해소 목적으로 각 부·현 주최로 여자척식강습회를 보조하도록 했다. 1938

23) 만주개척민대량 송출 계획과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제도 실시에 따른 개척민 배우자 수요가 증가하자, 대륙신부 모집 강습회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만주이민사업 전반에 대한 여성의 의식을 계발·함량하여 여성들의 만주이민을 추동하기 위해서였다. 단기간 동안 많은 여성을 교육하기 위해 확대된 여자척식강습회는 이민을 추진한 부·현 및 민간단체가 중앙 정부보다 먼저 주도한 것이었다. 강습회는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언론에서는 만몽이민신부학교, 신부숙, 대륙의 신부강습회 등의 이름이 사용됐다. 여자척식강습회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미야기현, 이바라키현이었다. 일본 정부는 1939년의 '만몽개척정책기본요강' 등의 자료에서 단기강습회라고 단순하게 명기했다. 1940년 전후 만주개척이민사업이 체계화된 후부터 여자척식강습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稼はどうつくられたか-戰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221).

년 척무성의 보조를 받은 23개의 부·현에서 여자척식강습회(女子拓殖講習會), 만주농업이민신부강습회(滿洲農業移民花稼講習會), 만주이민좌담회(滿洲移民座談會) 등이 약 150회 실시됐다(拓務省拓北局. 1941, 54). 이 시기부터 여자척식강습회는 조직적 면모를 보이며 전국에서 개최됐다. 동시에 1938년 이후, 각 부·현의 각종 부인단체 혹은 개인을 경영 주체로 하는 상설 여자척식훈련시설이 설치된다. 만주이민정책 확대에 따라 대륙신부 선전활동은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정부기관에서 후원하는 민관협력의 교육사업으로 나름의 체계를 갖춰갔다.

1937년부터 각 부·현 부녀단체 및 개인의 주도로 여자척식훈련소가 설립됐다.[24] 여자척식훈련소는 1940년 여자척식사업 정비과정에서 여자척식훈련소로 불렸다. 민간에서 설립하고 정부에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여자척식훈련소의 훈련내용과 지도요령이 정리됐다. 여자척식훈련소 역시 관민협력사업의 면모를 보였는데, 각 부·현과 훈련소마다 운영과 교육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만주여자척식사업대책요강'(1942년)에 따라 여자척식사업 관련 기구와 단체, 교육기관이 체계화되면서 여자척식훈련소의 대략적인 훈련내용과 지도요령이 제시됐다. 교육은 장기에 걸친 농사훈련과 전문 시설을 활용한 생활훈련에 중점을 뒀다.

대륙신부 교육기관이 등장하는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 국내의 농촌의 경제 및 인구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됐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만주이민 동기가 약해졌다. 당국이 대대적으로 만주이민사업을 추진할 사회적 배경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 때문에 전국에 정신동원령이 내려졌다. 이 시기부터 만주이민사업은 효율적인 동원을 위한 일원화와 국가 이데올로기 선전을 활용한 대중동원의 방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

24) 야마카타현 척무협회와 해외부인협회, 해외협회(아이치(愛知)현과 공통), 일만제국부인회, 수양단사회부, 조구교회사회사업부(上宮教會社會事業部)등의 민간단체도 훈련소를 설립했다(大森直樹. 1996, 216).

다. 이 시기 대륙신부사업 교육기관의 교과 편성에서도 이데올로기 전파 및 정신 수양 비중이 증가했다.

여자척식강습소와 훈련소의 교육 내용을 보면, 정신수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업을 받을 때마다 천황을 위한 봉사를 강조했고, 훈련원(대륙신부 후보생)의 맹세를 받았다. 만주이민사업 초창기와 크게 다른 점이다. 시범 이민 때는 농촌문제 해결이라는 이민사업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중심이었고, 대규모의 여성 이민이 요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데올로기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교육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중후반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적 측면에서 만주이민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일본 및 만주국은 만주이민사업을 확대했다. 따라서 대륙신부 관련 기관들은 이민자 유인을 위한 계몽교육 및 매체를 활용한 선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언론 및 선전문학의 대륙신부 모집 선전 활동이 활발했던 이유다.

<그림1> 대륙신부의 선전물

출처: 舞鶴引揚記念館(http://bitly.kr/wOJFubAnOb); 静岡新聞(http://bitly.kr/INr1qpT7L3; 上里町, http://bitly.kr/wjdMd5vXS2f(검색일: 2020.6.29.).

이후 대일본연합여자청년단 기관지『처녀의 벗(處女の友)』, 산업조합의 기관지『가정의 빛(家の光)』및『주부의 벗(主婦之友)』에서 만주로 결혼 이민한 일본인 여성의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여성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만주 이민과 만주에서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드러나 있다.『주부의 벗(主婦之友)』1937년 9월호를 보면, 1차 무장 이민단원과 결혼한 젊은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만주의 삶은 평화롭고 단란하며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주에 정착한 여성들이 현지 소작인으로 만주인 쿨리를 고용하고, 개척지에서『주부의 벗(主婦之友)』과 같은 잡지를 매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시부모의 간섭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근대 도시 가족의 삶을 계속해서 그려냈다. 이처럼 '만들어지는' 이민생활상은 각종 민간단체의 기관지, 신문, 선전문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됐다.[25] 애국부인회, 전국 소학교 연합 여교원조직, 대일본연합여자청년단, 이민협회, 동아건설여자동지회와 같은 민간단체와 여자학교교원 등의 여자척식지도자들에 활동으로 만주개척지의 삶에 대한 환상[26]이 일본 국내 여성들에게 확산됐다(杉山春. 1996, 76; 大森直樹. 1996, 123).

이러한 활발한 선전은 강습소, 훈련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재생산됐으며, 많은 수의 젊은 여성이 만주 개척 사업에 동경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27] 일부 여성은 만주에서 결혼하여 남편을 도와 식량 증식에

25) 대륙신부를 주제로 한 선전문학의 작품으로는『대륙신부이야기』,『대지의 신부』,『송화강의 신부』가 대표적이다.

26) 대륙신부 증언에 따르면 만주시찰단으로 참가했던 여교사는 "만주는 일청·일러전쟁과 만주사변, 지나사변으로 많은 일본인이 피를 흘렸던 곳이다. 그 땅은 일본인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들도 만주로 가서 국가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만주개척은 국책이지만, 남자만으로는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성 여러분, 오족협화의 주춧돌로 힘냅시다." 라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만주시찰단으로 다녀온 여교사가 "아직 만주에는 자원이 많다." 라며 학생들에게 만주행을 설득했다고 한다(杉山春. 1996, 76; 大森直樹. 1996, 123).

힘쓰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만주이민에 반대하는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고 대륙신부에 지원하기도 했다(柚木駿一. 1982, 154). 물론 농촌공황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농가의 여성들이 만주이민을 선택하기도 했다.

2. 대륙신부 교육기관 확장과 교과내용

척무성은 1939년부터 각 현에 1500엔 내외의 대륙신부 관련 보조금을 지불했다(陳野守正. 1992, 157). 이 시기부터 척무성의 요청에 따라 각 부·현에서 교육기관을 운영지도하고 민간단체 및 개인이 교육하는 관민협력의 체계를 갖췄다. 강습회는 농민도장, 학교, 사원, 신사, 여자척식훈련소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 시설을 빌려 실시됐다(<표2> 참조). 전문시설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학과훈련보다는 만주개척 사업의 의의나 여성의 사명과 같은 정신교육에 중점을 뒀다. '여자척식사업대책요강'(1942년)에 따르면, 여자척식강습회는 대개 1~2주 동안 진행됐고 협동정신, 근로정신의 함양, 일본 부도(婦道)의 체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교육 내용을 습득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각 부·현의 직원과 개척지도자가 수강생과 동거하면서 교육을 보조하는 사숙의 방식으로 운영했다. 부도 훈련에는 지역 유력자를 초청하여 강연하는 방식을 취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27) 신명사(神明社)에서 훈련복인 몸빼 모습으로 진행된 합동결혼식은 가호쿠신보사(河北新報社)의 발성 뉴스 영화로 제작되어 각지에 소개되었다(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ー「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舍, 153).

<표2> 일반여자척식강습회의 훈련내용

훈련종류	훈련내용
정신훈련	황국민(皇國民) 수련, 내무훈련, 정조 육성, 부도(婦道) 체득
학 과	만주개척사업의 중요성 및 여성의 사명 개척단 및 청소년의용군 설명 만주농업 사정 및 일본농업 사정 만주국 건국정신과 협화정신(協和精神) 각 부·현 만주 개척민 송출 현황
생활훈련	개척지 의식주 문제 해설 보건위생, 육아소양 해설 간단한 금전출납 교육 * 다른 실습 및 학과와 연계하여 진행
농업훈련	각종 농업실습을 통해서 농업 국가적 의식을 체득
체조훈련	아침저녁으로 일본체조 실시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209-210.

강습 기간은 1주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주최하는 현마다 다르게 시행됐다(5일~3주). 강습 1회당 수강생 수도 20명(이시카와현, 1941년), 70명(미야기현, 1937년) 등 제각각이었다. 1940년도에 40개의 각 부·현에서 실시된 여자척식강습회의 1회당 수강생 수의 평균은 47명이었다(陳野守正. 1992, 157). 강습회는 민간단체나 각 부·현에서 운영하여 강습회별로 다양한 정책을 구현했다. 훈련의 내용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주이주협회(滿洲移住協會)가 발행한 기관지『개척(開拓)』을 통해 강습회에서 진행했던 훈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41년 4월호(제5권)에 게재된 '후쿠이현 이마조(今庄)촌의 여자척식훈련'이라는 제목의 르포르타주 기사는 여자척식강습회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大森直樹. 1996, 222). 기사에 따르면, 강습회는 흥아성업(興亞聖業) 완수를 위해 현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여성들이 야마토(大和)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동시에 일본 부도를 체득하여 황국 농민의 배우자로서 필요한 심신을 육성·

수련하기 위하여 실시됐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반하는 황국 농민도, 수양강좌와 만주개척 정책에 대한 시사문제 강좌, 가사, 재봉, 음식 조리 등의 실기 강좌가 열렸다. 그 외에도 재봉, 마사지, 생화 등의 특기(特技)나 정지(整地) 청소 등의 실습도 진행됐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황국주의를 기조로 한 의례와 의식 관련 훈련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강습생은 매일 황국의 여성으로 심신 수련을 통해 천황의 기대에 부흥하겠다는 내용을 매일 복창하고,[28] 매일 행사에서 일동경례, 궁성요배, 국기계양(기미가요 두 번 제창), 칙어봉독이라고 하는 의식을 수행했다. 요리법을 배울 때에도 행동 규율은 엄격했으며, 식사 전마다 보은감사의 시를 낭송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을 참고하면, 전문 훈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강습회가 만주이민사업에 대한 선전과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습회가 상술한 이념 교육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식사 후에는 좌담회 혹은 창가, 유희(오락)이라고 시간도 가졌으며, 영화 감상회나 소풍을 가기도 했다. 이는 수강생이 훈련을 즐겁게 수용하면서 다른 교육을 수행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후쿠이현 여자척식강습회 외에 다른 많은 여자척식강습회에서도 학과, 실습, 정신훈련에 오락적 요소를 가미하여 교육이 이뤄졌다.

1942년 척무성 척북국 보도과(拓務省拓北局補導課)가 작성한 '여자척식지도자제요(女子拓殖指導者提要)'는 여자척식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1939년~1940년 말까지 실시된 여자척식강습회 수강자 수료 후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념으로서 자신은 만세일계의 황실을 받들어 보시는 황국 일본의 신민입니다 나는 흥아의 성업을 수행하는 대일본여성입니다 심신수련에 충실하여 반드시 천황 폐하의 마음에 부흥하겠습니다"

<표3> 12개 부·현 여자척식강습회 수강자 상황 조사(1939～1940년 12월 말)

구분	인원	백분율
개척 농민의 부인	483명	10.2%
개척 농민의 부인으로 알선 중	40명	
만주 또는 다른 지방에서 결혼	81명	1.6%
일본 국내 결혼	833명	16.1%
미혼 또는 기타	3,713명	72.1%
여자척식강습회 모두 수강	5,150명	100%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172-173.

이후 척북국은 내지 훈련소 신부 알선 사업성과 분석에서 “이후부터 신부 수요 규모의 배수를 여자척식강습회에 참가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상당수의 미혼여자를 수강”시키고 미혼자와 부인에 대한 여자척식강습회를 구별하여 실시하라고 강습회 주체들에게 요청했다(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171). 이에 따라 미혼여성을 상대로는 ‘만주개척민 배우자의 적극적 양성을 위한 강습회’를, 부인에게는 ‘부모의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회’를 개최했다. 부모의 계몽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강습회장에서 대륙신부를 희망했던 강습생들이 모친과 조모의 반대로 신부 지망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大森直樹. 1996, 224). 또한 각 부·현 별로 필요한 신부 수를 분담하여 맞선에 참여할 수강자를 확보하려는 지도가 이루어졌다.

일본정부가 재정적 보조를 시작한 1938년부터 23개 부·현에서 각 부·현 주최의 여자척식강습회가 실시됐다. 1940년에는 40개 부·현, 총합 165회 실시됐으며 총 수강인원은 7,755명이었다. 1942년도까지 여자척식강습회는 모든 부·현에서 실시되어, 1년간 총 수강 인원은 대략 매년 9,000여 명 정도였다(大森直樹. 1996, 221).

<표4> 여자척식강습회의 훈련 현황(1940년)

종 류	횟 수	평균 참가 인원	평균 일수	누계
일반여자척식강습회	165	30-50명	5-21일	7,755
지방여자척식강습회	18	30-60명	3-21일	600

출처: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 207.

이민자 출신지의 민간단체 협조를 중심으로 진행된 초기 배우자 모집 활동은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실시됐다. 개척 관계 부인단체, 각 부·현 해외협회, 일만제국부인회(日滿帝國婦人會), 해외부인회와 더불어 여자척식강습회와 여자척식훈련소가 배우자 알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39년 12월 22일 일본과 만주국 양국은 1939년 1월 10일 관동군이 작성한 '만주개척근본정책기본요강안(滿洲開拓根本政策基本要綱案)'에 기초하여 20개년에 걸쳐 백만 호를 송출하려는 계획을 집행할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이하 기본요강)을 작성했다. '기본요강'은 전문적으로 대륙신부를 양성할 훈련소 설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40년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가노현에 전국 최초로 현립 훈련소가 설립되었다. 대륙신부 대량 송출을 위한 교육사업이 정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1941년에는 많은 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척무성과 현의 예산문제로 나가노현, 야마가타현, 도치기현, 오이타현, 이바라키현, 에히메현, 시마네현, 시즈오카현 등 8개의 현에 한정하여 각 부·현립의 훈련소가 설립됐다. 각 부·현립의 경우 훈련소의 경영은 현이 담당했으며, 척무성은 건설비, 전임직원비 등의 비용을 보조했다.

1940년 2월, 일본은 만주개척사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주개척협력협의회(滿洲開拓協力協議會)를 창설했다. 만주개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개의 단체가 가맹하여 조직됐고, 척무성 내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 협의회의 목표는 가맹단체와 밀접하게 소통하여 일본 내 만주 개척정책을 철저하게 보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청소년의용군 모집뿐만 아니라 여성의 개척사상 고취도 도모했다. 만주개척협력협의회는 각 도·부·현의 협력협의회에 대해 지도연락의 위치에 있었고(拓務省拓務局. 1940, 41), 대륙신부 교육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척무성은 1940년 4월 각 현에 만주이민결혼소개소(滿洲移民結婚紹介所) 설립에 관해 논의했다. 이처럼 척무성이 대륙신부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모집과 알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정비됐고 결혼 알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도 설립됐다. 신부모집을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는 등 여성 대량 송출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모집 알선 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선전 활동과 전폭적인 모집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자척식강습회 및 훈련소를 통해서 실제로 대륙신부로서 만주로 이민하는 여성은 수료생의 20% 정도에 불과했다.[29] 결혼을 전제로 하던 여성이민 추진의 근본적 한계였던 것이다. 당국은 급증하는 남성 개척민 수에 맞춰 신부를 조달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동군은 대대적인 여성 만주 송출을 위해서 의용대 개척민송출 방법에서 착안한 만주국 현지 신부교육기관인 만주개척여숙의 설립을 기획했다.

양질의 신부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교육기관이 정비됐다. 이 기관의 교육 내용은 만주 개척지 정착에 관련된 부분보다 가정의 안락자, 남성의 정신적 위안자, 육아의 전담자 같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항목들로 채워졌다.

29) 대륙신부 교육기관이 설립된 후에도 훈련소 알선과 관계없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결혼, 개척단 출신지의 관공서 및 여자학교 교원 등 소위 여자척식지도자의 알선을 통한 결혼도 상당했다. 대륙신부에 참여했던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미나미하라(南原)촌 츠나기(綱木)의 경우 1937년부터 촌내에서 만주이민 이야기가 자주 돌았으며, 촌장이나 부읍장이 혼기가 찬 여성의 집을 돌면서 만주 신부를 권유했다고 한다. 1930년대 중후반부터는 여성들의 만주 진출을 국가나 촌 관공서가 강력하게 권하는 시대의 풍조가 생겨났으며, 교육기관은 이러한 당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문기관이었다(石原八重子. 1991, *大地を拓いた女たち-滿州開拓から近代農業に行き着いて 聞き書き*).

이 항목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국가 이데올로기였다. 일본과 만주국에 설립된 대륙신부 교육기관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민사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여성들을 결혼 이민으로 유인하기 위한 개척민 배우자 모집 및 알선 기관에 가까웠다.

Ⅳ. 결론

지금까지 일본 여성을 만주로 대량 송출하기 위해서 관동군, 일본 정부가 일본 내에 설립한 대륙신부 교육기관인 여자척식강습소, 여자척식훈련소의 설립·발전·변화 과정과 대륙신부 교육 내용을 일별했다. 일본에 설립된 여자척식강습소·훈련소는 여성을 개척민들과 결혼시켜 만주로 이민하는 조류를 형성하기 위해 개척남성 출신지역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설립·운영한 기관이었다. 1937년 만몽개척청소년의용대가 발족했고, 여성의 만주이민이 지지부진하자 일본 당국은 관련 기관을 정비하고 일원화했다. 초기 대륙신부 교육은 지방 및 민간단체가 주도했고 이후 정부가 관여하고 협조하여 민관협력의 양태를 보인다. 1930년대 후반부터 만주에 설립되는 만주개척여숙은 관동군이 여자척식강습소와 훈련소를 모델로 기획한 기관으로, 1939년에서 1940년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일단의 성과를 거뒀고, 이를 중시한 일본 정부와 만주국의 예산보조로 증설된다. 이 시기 대륙신부 모집과 결혼알선의 중심축이 일본 현지의 일본 여자척식강습소·여자척식훈련소에서 만주개척여숙으로 이동됐다. 이처럼 일본 현지 여자척식강습소, 여자척식훈련소에서 만주개척여숙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 확대·증설은 대륙신부의 편의를 도모하기보다는 일본의 팽창정책이 요구하는 여성이민 수요를 목표로 했다. 따라서 교육기관들은 중국 현지 적응에 필요한 교육 내용보다 일본 국가 이데올로기를 핵심으로 한 여성성

강화를 중심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30]

여자척식지도자들은 여성들을 결혼이민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주환상과 만주로망을 자극하고 애국심을 조장했다.[31] 특히 여자척식지도자들은 만주개척여숙 입소자 모집 때 교육기관 수료 후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축소·은폐하기도 했다. 많은 여성은 만주이민생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대적인 매체의 선전과 여자척식지도자들의 선전교육이 자아낸 동경심에 이끌려 만주로 향했다. 이 시기, 국가를 위해서라면 누구와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자세로 만주행을 선택한 여성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대륙신부 교육기관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활동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방증이다. 동시에 농민의 자격으로 이민에 참여할 수 있었던 당시 일본 남성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만주이민이 가능했던 당시 일본 농촌 여성 대다수의 사회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척식강습소·여자척식훈련소는 일본의 대(對) 만주평창정책에 여성의 신체를 동원하기 위해서 선전 활동을 펼친 기관이었다. 따라서 대륙신부 교육기관은 이민생활에 유용한 기술보다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복고적인 여성관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복고적 여성관은 여성에게 출산·생식 역할과 현모양처라는 유교적 여성상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반하는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했다(平井恒子. 1941, 11~1; 荻野

30) 1940년대 일본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만주이민여성에게 농가 주부로서의 전통적인 여성 역할과 더불어 새로운 여성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출산을 통한 개척지 내 '야마토 민족'의 순혈 유지·확장의 역할 강조였다. 당국은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강조하며 여성이 성(性)을 통해 만주국 내의 일본인 증대에 앞장서 일본인 순수 혈통을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우생학의 영향을 받았던 1940년대의 일본은 혈통 문제에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순혈을 강조했고, 그 외 세력권(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혼혈을 용인했다. 혼혈인이 현지인보다 우수하고, 통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만주 개척지에서 대륙신부에게 요구됐던 순혈주의는 만주 관련 일본 여성 신체 동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1) 선전물에서는 시부모 없이 남편과 아이만 있는 단란한 소가족의 여유로운 생활상을 등장시켜 만주의 일상으로 소개했다. 1930년대 무렵부터 일본에는 여성주의가 확산됐고 연애결혼이 증가하며 축첩 없는 핵가족이 늘어났다. 따라서 핵가족 중심의 만주 일상 선전은 만주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심을 크게 자극했다.

美穗. 2008, 21).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런 역할 부여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부여했다. '가정을 가꾸는 것은 국가를 가꾸는 것'과 같다, '국민을 키우고 교육하는' 여성 등, 전통적 여성역할(육아·가사노동 및 농경보조)을 재해석하여 대륙신부 후보생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려 했다(古久保さくら. 1997). 물론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가 여성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오히려 여성을 만주 이민지로 송출하여 만주이민지역 안정과 식량 증산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을 뿐이다.[32]

투고일 : 2020.06.07. 심사완료일 : 2020.06.18. 게재확정일 : 2020.07.02.

32) 전선이 확대된 1940년대부터는 여성노동력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다. 개척지 내 탁아소(만주개척회사 조성으로 1941년 기준, 57지구에 설립) 운영, '실습작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농사일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개척단에 속한 일본 여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대한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다.

참고문헌

〈간행자료〉

곽규환·김해림. 2018, “만주국 시기 일본의 여성동원과 만주 이민-만주개척여숙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25)*.

최경순. 2012, “만주 개척이민사에서도 소외된 일본의 피차별 부락민을 중심으로”, *만주연구(14)*.

안지나. 2017,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과 보고문학의 한계-간노 마사오(菅野正男)『흙과 싸우다(土と戰ふ)』(1940)를 중심으로.”, *만주연구(24)*.

안지나. 2016, “전시 제국의 미성년자 동원-후쿠다 기요토(福田淸人)의『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1943)을 중심으로,” *만주연구(21)*.

김영숙. 2013, “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개척단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122)*.

加衲實紀代. 1994, “滿洲と女たち”, *近代日本と植民地5 膨張する帝國の人流*, 岩波書店.

加藤聖文. 2002, *老苦體驗手記-海外引揚者が語り繼ぐ勞苦(引揚編) 第14卷*, 平和記念展示資料館.

古久保さくら. 1997, “「近代家族」としての滿州農業移民家族像-「大陸の花稼」をめぐる言說から”, *女性学研究(5)*, 1997.

大森直樹. 1996, *滿洲大陸の花稼はどうつくられたか-戰時期教育史の空白にせまる*, 明石書店.

渡邊洋子. 2002, “1940年代前半期の女子靑年團運動の指導理念と事業(I)-「國民化」とジェンダーの問題を考える手がかりとして”, *京都大學生涯教育學·圖書館情報學研究*.

蘭信三. 1994, *「滿州移民」の歷史社會學*, 行路社.
鈴木裕子. 1990, *從軍慰安婦·內鮮結婚*, ドメス出版.
滿州國通信社. 1996, *滿州移民關係資料集成(第31卷)*, 不二出版.
杉山春. 1996, *滿洲女塾*, 新潮社.
石原八重子. 1991, *大地を拓いた女たち-滿州開拓から近代農業に行き着いて 聞き書き*.
松田澄子. 2018, “滿洲へ渡った女性たちの役割と性暴力被害”, *生活文化研究所報告(第45號)*.
安志那. 2016, *帝國の文學とイデオロギー滿洲移民の國策文學*, 世織書房.
柚木駿一. 1982, “滿州移民運動の展開と理論-宮城縣南鄕村移民運動の分析”, *社會經濟史學(第四八卷第三號)*.
荻野美穗. 2008, “資源化される身體-戰前・戰中・戰後の人口政策をめぐって”, *學術の動向*.
陳野守正. 1992, *大陸の花嫁ー「滿州」に送られた女たち*, 梨の木舍.
平井恒子. 1941, *復古的女性觀, 明日の女性*, 長崎書店.
高乐才. 2000, *日本“滿州移民”研究*, 人民出版社.
李淑娟·王希亮. 2015, “日本的大陆扩张与“满洲开拓”女性”. *学术交流*.
孟月明·张洁. 2012, “日本“开拓团”中“大陆新娘”, *炎黄春秋*.
石艳春. 2010, “日本“满洲移民”中的女性”. *社会科学辑刊*.
石艳春. 2011, *日本“满洲移民”社会生活研究*, 高等教育出版社.
石艳春. 2014, “日本“满洲移民”时期的庄内型移民—以大和村为例”, *齐齐哈尔大学学报*.
孙炜. 2016, “抗日战争时期日本的“大陆花嫁””, *史学月刊*.
王青. 2011, “日本侵华期间“大陆新娘”政策的提出”, *首都师范大学学报*.
张洁·孟月明. 2011, “东北沦陷时期日本“大陆新娘”政策述评”. *人民论坛*.
张晓丽. 2015, “用“大陆新娘”安抚移民”, *辽宁日报*.

Mori Takemaro. 2004, “Colonies and Countryside in Wartime Japan: Emigration to Manchuria.”,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2)*.

〈미간행자료〉

拓務省拓務局. 1940, 滿洲開拓農民の概況.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北局. 1941, 滿洲開拓民概要, 拓務省拓北局.
拓務省拓北局補導課. 1942, 女子拓殖指導者提要, 拓務省拓北局.